

전기차 주행거리 1000km 시대 오나

(1회 충전)



벤츠, 순수 전기 컨셉카 '비전 EQXX' 공개

대형 세단 EQS급 배터리...에너지 95% 바퀴로 전달 지붕에 117개 태양전지 장착, 주행거리 25km 늘려줘

전기차 주행거리 1000km 시대가 열릴까. 메르세데스-벤츠가 1회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순수 전기 컨셉카를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전기차 구입에서 가장 큰 고려 요소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꼽힌다. 기존 출시된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300~500km 사이로,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전기차 소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전기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업계에서도 주행거리를 개선한 새로운 모델을 속속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10일 메르세데스-벤츠에 따르면 벤츠는 순수 전기 컨셉카 '비전 EQXX' (VISION EQXX)를 최근 메르세데스 미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비전 EQXX는 지난 18개월간 주행거리와 에너지 효율성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협력 기술 프로젝트 결과물

라고 벤츠는 전했다.

비전 EQXX는 150kW의 출력을 내는 초고효율 전기 구동 시스템을 적용해 배터리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95%가 모두 바퀴로 전달되도록 설계했다. 가장 효율적인 내연기관 구동 시스템 30%라는 점에서 이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벤츠는 단순히 배터리의 크기를 늘리는 대신 에너지 밀도를 높인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 팩을 개발했다. 에너지 밀도를 400Wh/L까지 높은 100kWh의 고용량 배터리팩이 탑재돼 대형 전기 세단인 더 뉴 EQS의 배터리와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용량을 루프에는 117개의 태양 전지를 장착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 유럽 최대의 태양 에너지 연구 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와 협력을 통해 완성된 헤딩 시스템은 주행거리를 25km 늘려준다. 외부에 온도 조절, 조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기타 장치에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외관은 벤츠 디자인 철학 '감각적 순수미'(Sen-

sual Purity)를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효율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다. 공기저항계수는 0.17Cd로, 현재 양산 모델 중 가장 낮을 뿐 아니라 더 뉴 EQS보다도 향상된 수준이다.

벤츠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비전 EQXX의 주행거리를 실제 교통상황을 반영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된 결과, 1회 충전시 1000km 이상을 기록했으며, 에너지 효율은 1kWh당 약 9.6km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실내는 문손잡이에 바이오스틸 섬유를, 실내 시트는 버섯과 선인장으로 만든 가죽을 사용하는 등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생명 공학 소재를 활용했다. 또 47.5인치의 완전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운전자의 요청에 즉각 대응하는 음성 인식 비서 '스타-클라우드 아바타'를 적용해 편안한 주행을 돕도록 설계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벤츠의 전기차 모델 EQS의 유럽기준 주행거리가 700km였으나 국내에서는 478km 인증을 받았다"며 "EQXX는 국내에서 최소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행거리가 대폭 늘면서 각 업계도 주행거리를 개선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해 경쟁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기아 '더 2023 모하비' 승차감 좋아졌다

연식변경 모델 본격 판매...4958만원~5871만원

기아는 프리미엄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하비의 연식변경 모델 '더(The) 2023 모하비' (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아에 따르면 2023 모하비는 바디(차체)와 프레임(골격)을 연결하는 '사시 프레임 마운트'의 강성을 높이고, 노면 충격과 진동 완화를 위해 서스펜션에 성능이 향상된 속업소버(shock absorber)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바디와 서스펜션의 일체감을 최적화해 험로 주행 시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확보했다는 게 기아 측의 설명이다.

또 고객 의견을 반영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제동하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과 2열 이종접합 차음 글라스, 애프터 블로우 등 안전-편의 사양도 기본화했다.

차량 전면부와 스티어링 휠 등에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했고, 신규 실내 색상인 '테라코타 브라운'과 '토포 그레이'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디자인 특화 모델 그레비티는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 등 실의 주요 장식에 블랙 유광 소재를 적용하고 블랙 우드그레인 장식으로 실내를 마감하



는 등 블랙 컬러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강인한 인상을 더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의무 적용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s) 시험 기준의 강화 요건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도 추가했다.

2023 모하비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플래티넘 4958만원 ▲마스터즈 5493만원 ▲그레비티 5871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모하비는 뛰어난 동력성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프리미엄 대형 SUV"라며 "기아는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강화한 모하비로 대형 SUV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글로벌 CSV 프로젝트 컨티뉴 '첫 선'

친환경·모빌리티·미래세대

현대자동차가 10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프로젝트 컨티뉴(Continue)를 처음 선보였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세대 등 3가지 중점 영역으로 구성, 글로벌 사업장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친환경 영역에서는 자원 순환과 생태계 복원 관점에서 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유럽 해양에서 폐그물 수거 활동을 확대, 이를 업사이클링해 차량 내부 소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브라질 열대우림에서는 산림을 복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친다.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이동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고려한 모빌리티 연결 서비스들을 운영한다.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교통사고 환자의 운전 재할을 돕고,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교통 빅데이터를 반영한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를 지원해 안전운행을 돕는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미래세대 영역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무한한 성장과 희망 지원 활동들을 펼친다. 1998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미국 소아암 지원 활동인 호프 온 휠스(Hope on



Wheels),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의 차량 전동화 및 자율주행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H-모빌리티 클래스 등을 지속 운영한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대표적인 친환경 CSV 활동을 담은 홍보 영상 'PET의 여정'(The Journey of PET)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세계적 이슈인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수 십 년간 바다 위를 떠돌던 폐플라스틱 병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친환경 차량의 소재로 활용되는 여정을 보여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친환경 모빌리티 역량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CSV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중국 CGD 어워드'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는 '2021 중국 CGD(Contemporary Good Design) 어워드'에서 자사의 2개 제품이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금호타이어의 중국시장 출시 제품으로, 본상을 수상한 승용차용 타이어 'SOLUS HS63'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용 타이어 'ECSTA PS71'은 혁신성과 기능성, 내구성, 상징성, 제품 재료 및 에너지 소비 적정성 등 평가항목을 통과하고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중국 사면시에 있는 레드닷 디자인 전시관에 1년간 전시된다.

CGD는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독일 레

드닷(Red Dot)이 60년 이상의 전문 지식과 디자인 상을 운영한 경험을 활용해 출품작을 심사한다. 중국 홍차자동차에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중인 SOLUS HS63 제품은 승용차용 고성능 여름용 타이어로, 건조하고 젖은 표면에서 안정적인 제어와 제동 성능을 발휘한다. 낮은 소음, 부드러운 주행감, 뛰어난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 '골든 휠 어워드'(Golden Wheel Award)에서 '베스트 컴포트 타이어상'을 받기도 했다.

ECSTA PS71은 일기-폭스바겐, 장성기차, 합중기차 등 중국 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에 납품중인 제품이다. 고속주행에 특화된 프리미엄 스포츠 타



이어이며, 전체적인 접지면적을 극대화해 제동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제품의 특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의 디자인은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패턴 디자인이 성능을 좌우하고, 사이드월에는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담고 있는 흥미로운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 역량을 발휘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별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화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역 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062)720-2000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일 제190816-총-38891호